

HEADLINE NEWS

교육내실화 위해 소규모의 활력 있는 고등학교 신설 추진 (뉴욕)

미국 대도시들은 오랫동안 예산 절감 등을 이유로 대규모의 고등학교를 선호해왔다. 그러나 학생들의 성적이 떨어지고 학원 내 안전 문제가 발생하자, 최근에는 소규모 학교 신설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대규모 고등학교보다 소규모 학교가 대학 진학률과 졸업률이 높고, 퇴학률이 낮은 등 교육효과가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규모 학교의 경우 교사와 학생간의 접촉이 잦고, 학교가 보다 안전함에 따라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성장한 학생도 성공할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뉴욕 맨해튼에 있는 JREC 고등학교는 학생 수가 3천명이 넘는 대규모였을 때에는 학생의 1/3 정도만이 졸업했으나, 4개의 소규모 학교로 분리된 후에는 각 학교의 졸업률과 대학 진학률이 80%를 넘어섰다.

뉴욕시도 고등학교 교육개혁의 핵심과제로 소규모 학교 신설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저소득층 및 소수인종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내실 있는 소규모 고등학교 200개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중 67개 학교에는 'Gates Foundation'이 총 5,12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index.jsp?pageID=mayor_press_release&catID=1194&doc_name=http%3A%2F%2Fh2003-10-09](http://www.sdi.re.kr/index.jsp?pageID=mayor_press_release&catID=1194&doc_name=http%3A%2F%2Fh2003-10-09))

HIGHLIGHTS

도시관리

- ① 저소득층 주택 구입 기회 확충을 위한 기금 마련 (델라웨어주: 도버市)
- ② 고층화로 인한 지반침하를 막기 위해 고층빌딩 건축 금지 추진 (상하이)

도시환경

- ③ 도시환경 관리 위해 인공위성 데이터 정리 및 분석 실시 (작센안할트주: 마그데부르크市)

도시교통

- ④ 미국 주요 도시 통행지표 발표 (미국 전역)
- ⑤ 버스통행시간 단축 위해 'No Cash, No Queue' 추진 (런던)
- ⑥ 자전거 이용 촉진 위해 자전거 주차장 설립비용 지원 (런던)
- ⑦ 교통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Toward Zero Deaths' 프로그램 실시 (미네소타주: 세인트폴市)
- ⑧ 시민의 교통안전의식 제고 위해 교통안전달력 제작 (노스다코타주: 비즈마크市)

사회복지·문화

- ⑨ 10월을 '어린이 건강의 달'로 지정 (미국 전역)
- ⑩ 시각장애인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하얀 지팡이의 날 제정·운영 (오스틴)

행·재정

- ⑪ 주차위반 범칙금 인상해 불법주차 및 재정적자 감소 시켜 (뉴욕)
- ⑫ 市홈페이지에서 'My Neighborhood' 프로그램 운영 (뉴욕)
- ⑬ 지하철 터널 벽면을 이용해 동영상 디지털 광고 시행 (베이징)

① 저소득층 주택 구입 기회 확충을 위한 기금 마련 (델라웨어주: 도버시)

미국 델라웨어주는 저소득층의 주택 구입 기회 확충을 위한 기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Delaware State Housing Authority'가 추진하는 이 계획은 6천만 달러에 이르는 채권을 발행하여, 그 재원을 토대로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주택 구매자에게 저리의 주택 융자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혜택을 받을 대상자는 이전에 주택을 구입한 적이 없는 저·중소득 계층으로 한정된다. 또한, 이러한 소득 제한은 주택 구입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약간의 차등을 둘 계획이다. 관계당국은 이 계획이 시행되면 부수적으로 건설 산업에 대한 투자가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www.newszap.com/archives/index.inn?loc=detail&doc=/2003/October/09-671-news02.txt)

② 고층화로 인한 지반침하를 막기 위해 고층빌딩 건축 금지 추진 (상하이)

중국 상하이시는 마천루의 무게에 눌러 도시 지반이 매년 조금씩 내려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지질조사연구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매년 1.5cm씩 가라앉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초고층 빌딩이 모인 浦東 지구 루자쭈이(家嘴) 금융가는 매년 3cm씩 내려앉고 있다.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고 지하수마저 고갈되면서 지반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연구원은 지반 침하 사태를 방지할 경우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언론에서는 50년 후면 시의 일부 지역이 해수면보다 낮아질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시에 들어선 18층 이상 고층건물은 현재 3천개가 넘고, 100m 이상 마천루도 100여개에 이른다. 이에 따라 시는 시중심부에 고층빌딩 건축을 금지하는 '상하이 도시계획 수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안이 통과되면 마천루 건축 붐도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세계일보, 2003. 10. 3)

도시 환경/도시 교통

세계도시동향

3 도시환경 관리 위해 인공위성 데이터 정리 및 분석 실시 (작센안할트州: 마그데부르크市)

독일의 작센안할트(Sachsen-Anhalt)州는 州의 환경관리를 위해 인공위성 데이터를 정리·분석하는 연구프로젝트를 지난 3년간 수행하여 최근 완성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인공위성 데이터 평가를 위해 다양한 도면을 포함하는 특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7개 연구기관에서 수행했다. 이 연구를 통해 다양한 경관의 구분, 경관의 응용방식 및 응용결과 등이 구체적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현재 인공위성 데이터의 처리방식이 제한적이고, 전문기능을 수행할 담당자가 부족한 것이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이번 프로젝트 결과는 “환경과 안전을 위한 글로벌 모니터링”이라는 유럽 전체 프로젝트에 활용될 예정이다. 관련 자료가 인터넷 홈페이지(www.delphi-imm.de/ofulsa)에 올려져 있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Natur und Landschaft, 2003. Mai. 78. Jahrgang, p.182)

4 미국 주요 도시 통행지표 발표 (미국 전역)

미국의 교통연구기관 ‘Texas Transportation Institute’에서 발간한 “Annual Mobility Study”에 미국 내 주요 75개 도시에 대한 통행지표가 최근 발표되었다. 이에 따르면, 첨두시간대 통근운전자는 연간 51시간을 교통정체로 인해 추가적으로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혼잡에 의해 2001년 한 해에만 695억 달러의 시간 및 연료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9%의 주요 도로가 혼잡을 겪고 있으며, 하루 중 혼잡을 겪는 시간이 7시간에 이르는 등 교통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대중교통 및 교통신호체계 정비 등이 교통혼잡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교통신호 연동화를 통한 시간 절감분이 약 1,600만 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www.msnbc.com/news/973844.asp)

⑤ 버스통행시간 단축 위해 ‘No Cash, No Queue’ 추진 (런던)

앞으로 영국 런던 도심에서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버스 승차 시에 현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Pay Before You Board Scheme」이라는 이 계획은 승객이 운전자에게 요금을 지불하는 시간을 없애 통행시간 단축을 도모하려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 ‘Transport for London’은 약 300여개의 선(先)요금지불 지역을 설치하고, 승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자동매표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 버스를 이용하려면 누구나 1회권, 1일권 등을 미리 구입해야 한다 (사진 참조). 이 계획이 시행되는 지역은 킹스 크로스, 워털루, 빅토리아 등을 연결하는 런던 도심 지역이다. ‘Transport for London’은 이 정책으로 버스통행시간이 약 10%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Metro, 2003. 9. 9)

⑥ 자전거 이용 촉진 위해 자전거 주차장 설립비용 지원 (런던)

영국 런던의 ‘Transport for London’은 시내 각 학교에서 자전거 주차장을 마련하고자 할 경우 소요되는 공사비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원하는 학교는 지원서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Transport for London’은 이번 조치로 도심 교통 혼잡이 완화되고 학생들의 건강도 증진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관계당국은 이 계획을 향후 7년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전체 자전거 이용률을 1/3 정도 향상시킬 계획이다. 그동안 市는 전체 통행량의 1/20이 2마일 이내의 단거리 통행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옴에 따라, 이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다각도로 검토해왔다. (Metro, 2003. 9. 5)

7] 교통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Toward Zero Deaths’ 프로그램 실시 (미네소타주: 세인트폴市)

미국 미네소타주는 주정부 내 교통안전 관련기관 및 대학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 ‘Toward Zero Deaths’를 추진 중이다. 이 프로그램의 취지는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는데 있다. 프로그램 담당자들은 지역주민과 연계해서 지역 내 도로구간에서의 안전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술 및 관련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이미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몇몇 지역들은 실제적으로 교통안전문제를 진단 받은 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관계당국은 보다 많은 지역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권장함과 동시에, 교통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www.cts.umn.edu/news/2003/09/tzd.html)

8] 시민의 교통안전의식 제고 위해 ‘교통안전달력’ 제작 (노스다코타주: 비즈마크市)

미국 노스다코타(North Dakota)주 교통부는 시민들의 교통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내년도 ‘교통안전달력’을 제작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교통안전달력’은 그동안 교통안전 향상에 기여한 바가 큰 교통경찰 등 관련 공무원을 모델로 선정해 제작하고 있다. 최근 공무원 모델을 대상으로 계절별 교통안전 테마에 맞는 장소에서 화보 촬영이 실시되었다. 올 11월에는 ‘교통안전달력’이 출시될 예정이다.

(www.state.nd.us/dot/divisions/exec/nwdlts_calendar.htm)

9 10월을 ‘어린이 건강의 달’로 지정 (미국 전역)

미국 환경부는 어린이 건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10월을 ‘어린이 건강의 달’로 지정했다. 이를 위해 10월 달력을 특수 제작하여 영양 섭취, 학교에서의 안전, 환경 측면에서의 안전, 부상 및 질병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날짜별로 단계적으로 안내했다. 또한, 이 기간 중 그동안 추진해왔던 어린이 건강 관련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시행하였다. 환경부는 최근까지 통학버스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줄이는 ‘Clean School Bus USA’, 어린이 천식 발병에 대한 부모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대중매체 홍보, 위험물질을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을 권장하는 ‘Lock It Up’ 캠페인 등을 전개해 왔다.

(www.epa.gov/newsroom/hi-childrenshealthmonth.htm)

시각장애인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하얀 지팡이의 날’ 제정. 운영 (오스틴)

미국 오스틴市에서는 지난 10월 15일 시각장애인 관련단체를 대표하는 400여 명의 시민들이 ‘하얀 지팡이의 날(White Cane Safety Day)’을 기념하기 위해 시의회에서 시청까지 행진을 했다. ‘하얀 지팡이의 날’은 시각장애인들이 하얀 지팡이와 맹인안내견을 이용하는 권리를 인정하고, 이들의 자립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市는 그동안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책에 힘쓴 결과, 작년에는 미국맹인재단에 의해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10대 커뮤니티’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市는 공공도서관에서 시각장애인들에게 보조장치를 제공해주도록 했으며,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비밀투표를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었다. 또한, 어디든지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보행로, 음성교통신호체계, 점자로 된 버스 정류장 표지판, 커뮤니티 참여 및 독립적인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교통체계 등을 구축하고 있다. (www.ci.austin.tx.us/news/2003/whitcane_03.htm)

주차위반 범칙금 인상해 불법주차 및 재정적자 감소시켜 (뉴욕)

미국 뉴욕시는 교통 혼잡의 주 요인인 불법주차를 막기 위해 지난해에 55달러였던 주차위반 범칙금을 올해 들어 105달러로 대폭 인상하였다. 그 결과, 불법주차 감소는 물론 주차위반 범칙금 징수액이 대폭 증가하여 시재정적자의 감소 효과도 보고 있다.

시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에 끝난 2003회계연도에 시가 걷어 들인 주차위반 범칙금은 모두 4억 1,440만 달러로, 2002회계연도에 비해 3,500만 달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차위반으로 단속된 건수는 770만 건으로, 2002회계연도에 비해 31만 건이나 줄어들었다.

(Newsday, 2003. 10. 6)

시홈페이지에서 'My Neighborhood' 프로그램 운영 (뉴욕)

미국 뉴욕시는 최근 시민들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제공되는 시의 서비스 내역을 시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My Neighborhood'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시민들이 어떤 특정한 지역의 시서비스 제공 현황과 공공시설 등에 관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민들이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자신이 알고 싶은 지역의 주소나 거리 이름을 입력하면, 그 지역에서 제공되는 시서비스 및 그 지역에 위치한 공공시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My Neighborhood'에서는 거주지역의 교육기관, 행정기관, 의료기관, 경찰서, 소방서, 공원, 도서관, 오락시설, 교통, 주거 관련 행정서비스 정보도 제공한다.

(index.jsp?pagelD=mayor_press_release&catID=1194&doc_name=http%3A%2F%2Fh2003-10-09)

지하철 터널 벽면을 이용해 동영상 디지털 광고 시행 (베이징)

달리는 지하철 차창을 통해 동영상 광고가 보이는 터널비전시스템(Tunnel Vision System)이 10월 20일 중국 베이징 지하철에서 첫선을 보였다.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 지하를 통과하는 지하철 1호선 푸싱먼-시단驛 2km 구간에 오전 6시부터 지하철이 통과할 때마다 터널 벽면에 “지하철 탑승을 환영한다”는 동영상 광고가 나타났다. 베이징 지하철 푸싱먼-시단 구간에 내보내는 동영상 광고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 광고 등 총 8종이며, 한 번에 20초씩 하루 220번 내보낸다. 관계당국은 월 평균 약 8만 달러의 광고 매출을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베이징 지하철 전구간은 물론 베이징올림픽과 2010년 상하이 세계박람회 등을 겨냥해 상하이, 광저우 등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터널비전시스템은 영화의 원리를 뒤집은 새로운 개념의 동영상 디지털 광고로서, 지하철 벽면에 빨강, 노랑, 파랑, 초록 등 4개의 발광 다이오드(LED)가 일정 간격으로 설치돼 있어, 고속 지하철 탑승객들은 발광체의 이미지 잔상 효과로 인해 지하철 차창에 나타난 동영상 광고를 볼 수 있게 된다. 터널비전시스템을 개발한 한국의 ‘터널비전애드코리아’는 앞으로 한 달간 시범운영을 한 뒤 베이징지하철공사와 합작으로 정식법인을 만들고 지하철 동영상 광고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Focus, 2003. 10. 21)